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5. 2. 18.(화) 12:00 < 2.19.(수) 조간 > 배포 2024. 2. 17.(월)

범부처 역량 결집, 핵심광물 투자 지원

- 민관합동 '핵심광물 투자 협의회' 출범 회의 개최
- 연간 500억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기금 핵심광물 직·간접 투자 지원

전기차·반도체 등 첨단산업 필수 원료로 활용되는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범부처·기관 역량을 결집하여 민간 투자 지원에 나선다.

정부(산업부·기재부·외교부)는 '25.2.18일 공공기관(광해광업공단·지자연·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에너지공단·KOTRA) 및 민간 협단체·기업(해외자원산업협회 등)과 합동으로 '핵심광물 투자 협의회' 출범 회의를 개최하여 국내·외 핵심광물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금번 협의회는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24.12)'과 '25년 경제정책방향('25.1)'에 따라 출범하였다. 정부는 동 협의회를 통해 민간 중심의 유망 핵심광물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 투자*를 비롯한 해외자원개발조사·융자(광해광업공단·에너지공단), 해외투자보험(무역보험공사) 및 공급망컨설팅지원(KOTRA) 등 기존 지원제도를 포괄하는 민관협력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 민간 유망사업 발굴 → 핵심광물 투자 협의회 → 공급망기금운용심의회 → 직접·간접투자 등 지원

특히,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올해부터 연간 500억원 수준에서 핵심광물에 대해 민관 공동투자를 추진하고, 연도별 수요에 따라 지속·장기투자를 추진함으로써, 핵심광물 투자가 단기·일회성 투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장기 투자로 이어지도록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다.

그간 정부는 '핵심광물 확보전략' 마련('23.2), 정부간 협력채널 구축·운영, 해외자원개발 조사·융자 지원 등 민간의 핵심광물 확보를 간접적으로 지원해 왔으나, 직접투자 지원 수단이 없고 지원 사업간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공급망안정화기금과 동 협의회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핵심광물 확보 프로젝트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원사업간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민간의 자원개발사업 성과를 제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의장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핵심광물 투자 협의회와도 연계하여 채굴·가공 등 다양한 해외 핵심광물 투자 사업에 참여하는 우리 기업들을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동 협의회는 해외자원산업협회와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공동간사로 운영한다. 향후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개최함으로써, 유망 프로젝트를 발굴·지원하고, 정부 지원제도의 개선방안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총괄>	자원산업정책국 광물자원팀	책임자	팀 장	윤용석 (044-203-5259)
		담당자	사무관	김지훈 (044-203-5258)
	기획재정부 공급망분석팀	책임자	팀 장	손정혁 (044-215-7885)
		담당자	사무관	이상민 (044-215-7873)
	외교부 경제안보외교과	책임자	과 장	김광우 (02-2100-8192)
		담당자	사무관	임주희 (02-2100-729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